

'3연패 악몽' LG 1위 지킬까

프로야구 전망대... 상위권 SSG·삼성과 원정 6연전 최하위 추락한 KIA는 키움 상대로 무패 행진 주목

프로야구 중간 순위 1위를 달리는 LG 트윈스가 상위권 팀과의 10연전을 준비한다.

LG는 이번 주 공동 2위 SSG 랜더스와 인천에서 3연전을 치른 뒤 대구로 옮겨 4위 삼성 라이온즈와 격돌한다. 다음 주 더블헤더 포함해 kt wiz와 벌이는 주중 4연전까지 LG는 한숨도 방심할 수 없다.

류지현 LG 감독은 "무리하지 않고 매달 5할 승률에서 2~3승씩 더 거두자는 생각으로 시즌을 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류 감독의 구상대로 정규리그 개막 후 5월까지 26승 21패를 거둔 LG는 아직 끝나지 않은 6월에만 12승 5패를 수확해 38승 26패로 승패 마진을 +12로 크게 늘렸다.

이번 10연전에서 반타작 이상의 승

률을 올린다면 LG가 도쿄올림픽 휴식기 전까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이번 6연전은 이번 시즌 싸움이 3연패를 당해 쓴맛을 제대로 들이킨 곳에서 벌어져 LG의 각오가 남다르다.

LG는 5월 21~23일 인천에서 SSG에 3경기를 내리 내졌다.

SSG는 전신 SK 와이번스 시절인 2017년 5월 26~28일 이래 4년, 날짜로는 1456일 만에 LG와의 3연전을 풀어 담았다. LG는 또 4월 30~5월 2일 달구벌 3연전에서 삼성에 3연패했다.

류지현 감독은 두 번의 3연패를 떠올리며 "팀에 큰 위기였는데 삼성 3연패 후엔 두산 베어스에 2연승을 거둬 분위기를 바꿨고, SSG전 3연패 후엔 롯데 자이언츠에 2연승을 달려 연패를 끊었다"며 "어려움을 뚫던 두 팀에

설욕할 차례"라고 일정을 별렀다.

LG는 임찬규를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해 당분간 6인 선발 로테이션을 가동할 예정이다.

선발 투수들의 컨디션을 바가며 등판 간격을 하루씩 늘려줘 무더위를 앞두고 체력 안배도 신경을 쓸 전망이다.

최하위로 추락한 KIA 타이거즈는 kt, 키움 히어로즈와 힘겨운 수도권 6연전을 준비한다.

팔 부상으로 나란히 이탈한 에런 브룩스, 대니얼 멩겐 두 외국인 투수의 합류 시점이 불투명해 마운드는 더욱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팔 통증 없이 20일 불펜 투구를 마친 브룩스가 그나마 일찍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KIA에 5전 전패를 당한 키움이 주말 안방에서 반격할지 주목된다.

키움은 4월 6~8일 KIA와의 고척 3연전에서 두 차례 연장전 패배를 포함해 3연패를 당한 뒤 광주 2연전을 모두 1점 차로 패하는 등 이번 시즌 4번이나 1점 차로 무릎 꿇었다. 연합뉴스



“저리 비켜!” 21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올림피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유러피언선수권대회(유로 2020) 이탈리아와 웨일스의 경기에서 선수들이 볼 다툼을 하고 있다. 이날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는 10명이 싸운 웨일스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탈리아는 '3연승-무실점'의 완벽한 경기력으로 A매치 3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코리안 빅리거 동반 선발승 “어렵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KBO 올스타 팬 투표 1위

류현진 볼티모어전 패투 7이닝 1실점 시즌 6승째 김광현 4이닝 1실점 교체

미국프로야구(MLB)에서 뛰는 왼손 투수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동반 선발승 달성이 세 번째 도전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류현진은 21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오리올 파크 옛 캠프야드에서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치른 방문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공 100개를 던져 1점만 주는 뛰어난 투구로 팀의 7-4 승리를 이끌었다.

류현진은 지난달 29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 이래 23일 만이자 4번째 도전에서 시즌 6승을 수확했다. 1회말 트레이 맨시니에게 전패특허인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홈런을 맞고 정신을 차린 류현진은 이후 빠른 볼과 컷 패스트볼로 볼 배합을 바꿔 추가 점수를 주지 않고 볼티모어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강판하기 전까지 18명의 타자 중 17명을 범타로 돌려세워 시즌 4번째로 7이닝 투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MLB닷컴, 토론토 선 등 미국과

캐나다 언론은 지난 3경기에서 2패, 평균자책점 6.11로 부진했던 류현진이 제구 능력을 멋지게 회복했다며 그를 승리의 수훈감으로 평가했다.

김광현은 조지아주 트루이스트파크에서 치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의 방문 경기 더블헤더 2차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3안타를 맞고 1실점 했다. 3회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에게 시속 138km 슬라이더를 던졌다가 솔로 홈런을 맞은 게 유일한 실점이었다.

김광현은 0-1로 끌려가던 5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의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됐고, 7이닝 더블헤더 경기가 0-1 세인트루이스의 패배로 끝나자 김광현은 시즌 5패를 안았다. 김광현은 평균자책점을 3.60으로 낮춘 것에 만족해야 했다.

류현진과 김광현이 동반 출격했던 6월 5일, 16일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첫 번째엔 류현진과 김광현은 나란히 패전 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휴스턴전에서 5%이닝 7실점(6자책), 김광현은 신시내티전에서 3이닝 3실점 했다.

16일 경기에선 둘 다 켈리티스타를 달성했으나 승리는 못 챙겼다. 류현진은 뉴욕 양키스전에서 6이닝 3실점, 김광현은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6이닝 1실점 했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 강민호 KBO 올스타 팬 투표 1위

드림팀 포수 부문 37만218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의 2021시즌 초반 상승세를 이끈 포수 강민호(36)가 올스타전 팬 투표 1차 집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KBO는 21일 2021 신한은행 솔(SOL)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팬 투표 1차중간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드림 올스타 포수 부문의 강민호는 37만218표를 얻었다.

전체 득표수 2위인 나남 올스타 외야수 이영후(키움 히어로즈)의 득표수는 34만3694표다.

강민호는 롯데 소속이던 2012년 89만2727표를 얻어 올스타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다. 그는 통산 11번째 베스트 12, 2번째 최다 득표를 노린다. 삼성은 외야수 한 자리(SSG 랜더스 추신수)를 제외한 11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린다.

이번 중간집계 1위 중 최고령 선수는 1982년생 베테랑 동갑내기 SSG 추신수와 삼성 오승환이다. 최연소 1위는 2001년생 삼성 내야수 김지찬이다.

KBO는 2차 중간집계 결과를 28일에 발표한다. 팬 투표 최종 마감은 7월 9일 오후 6시이며, 7월 12일에 최종 결과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임성재·김시우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

세계 랭킹 기준... 한국 1, 2위 2016년 이어 최경주 감독 선임

임성재(23)와 김시우(26)가 7월 도쿄 올림픽 남자 골프에 나갈 자격을 획득했다.

21일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 따르면 임성재는 26위, 김시우는 49위에 올라 한국 선수 가운데 1, 2위를 차지했다.

도쿄 올림픽 남자 골프는 21일 자체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상위 60명이 출전하고, 한 나라에서 최대 2명까지 나갈 수 있다. 단 세계 랭킹 15위 내에서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이로써 7월 29일부터 시작하는 도쿄 올림픽 남자 골프에는 임성재, 김시우가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이들에 이어서는 이경훈(30)이 66위에 올랐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때는 남자부에 안병훈(30)과 양정훈(26)이 출전했다.

당시에는 안병훈과 김경태(35)가 세계 랭킹에 의한 출전 자격을 확보했으나 김경태가 리우 올림픽을 앞



임성재



김시우

연합뉴스

두고 제기된 지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불참, 다음 순번인 왕정훈이 태극 마크를 달았다.

임성재나 김시우가 올림픽 출전 기회를 포기하면 다음 순번인 이경훈에게 차례가 돌아갈 수도 있다.

올림픽 남자 골프 감독에는 2016년에 이어 이번에도 최경주(51)가 선임됐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는 US오픈 챔피언 온 람(스페인)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1위로 올라섰다.

1위였던 더스틴 존슨(미국)이 2위로 밀렸고 2위 제스틴 토머스(미국)는 3위가 됐다. US오픈 준우승자 루이 우스트하겐(남아공)은 18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

아시아 국적 선수 중에서는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1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1: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11:55 슬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2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코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속아도 꿀꿀(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멀리서 보면 푸른 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8:50 밥이 되어라(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제주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아로파티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45 숲속 배달부 빙빙 8:00 땀방울 유치원 8:30 홀딩 슈퍼맨 9:40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글로벌 뉴스 13:00 일단 해봐요 14:10 EBS 다큐프라임 15:15 클래스 e 16:00 마쉬와 꿀 16:30 땀방울 유치원 18:00 생방송 밤과 후 토크 19:3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세상다만사 13:5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분야 16:00 시사간선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라디오스타(재) 13:50 유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뽀빠이(재)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디큐멘터리 3일(재) 17:50 통합뉴스룸 DT	12:00 12 MBC 뉴스 12:20 크리켓 12:50 뽀빠이 친구친구 13: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4:3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정치, 외교, 통일, 안보분야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TV 동물농장(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설계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기영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랑가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장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일 21:35 라디오강단 22:05 백원외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속아도 꿀꿀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재발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미스 몬테크리스토 20:30 노래가 좋아 21:3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2:10 멀리서 보면 푸른 봄 22:40 육방방의 문제아들 1부 23:35 육방방의 문제아들 2부	18:05 테마기행 길 19:05 밥이 되어라 19:40 MBC 뉴스데스크 1부 20:30 MBC 뉴스데스크 2부 21:00 야유투트 출연 1부 21:55 야유투트 출연 2부 22:30 PD수첩 23:30 100본토론	18:50 생방송 투데이 1부 19:20 생방송 투데이 2부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표와 세상에 이면일기 1부 21:30 순간표와 세상에 이면일기 2부 22:00 리셋소년단 1부 22:40 리셋소년단 2부 23:20 린트하우스 3(재)	KCTV 7:00 KCTV 뉴스 8:30 세계의 99방상 9:00 KCTV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취미로 먹고 산다 13:00 UHD 제주산책 13:10 떠나요, 돌이서 14:00 디폴로넷 토크 15:20 헬리자 퀴즈쇼 16:10 떠나요, 돌이서 17:00 KCTV 뉴스 18:00 디폴로넷 토크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22일

김종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의욕이 강하고 갈 곳도 많고 활동도 원만할. 48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로 허전함이 밀려온다. 60년 책임분야의 능력을 인정받고 손조롭다. 다만, 임시생부오는 마음만 급하다. 72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 너무 기대하지말 것. 84년 신상품과 관련된 업종은 분주해지고 계약이 증가한다.

37년 동문서답할 일이 생기고 상대가 이해를 못한다. 49년 문서운이 원활하고 계약이 성사 되기도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나 가정에서 불화가 조성되니 내일에 전념하라. 73년 마음이 들떠 안정이 안되면 여행도 필요하다. 85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추진되고 기쁨도 있다.

38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 명예가 따른다. 50년 농장이나 과수원업은 일손이 부족하다. 62년 답답함이 있으면 자녀와 애로사항을 상의하면 일이 호전. 74년 자신의 일을 즐김 줄 아는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86년 잘난 척 하면 동료 또는 상사로부터 시련이 오래도록 지속된다.

39년 찬 음식을 드시면 탈이 날수 있으니 음식 주의. 51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해 방법을 찾고 협력하면 좋다. 63년 불화나 논쟁이 올 수 있으니 언행은 신중하다. 75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면 먹을 것이 생긴다. 87년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하면 기분이 두 배로 좋아진다.

40년 생각과 행동이 부자연스러우니 일에 진전이 미진하다. 52년 명예 또는 직업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64년 애매한 결정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도 필요하다. 76년 내집 마련 또는 이사는 서남간이 유리하다. 88년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하면 풀린다.

41년 뜻밖에 웅돈이 생기거나 일이 풀린다. 53년 관제나 구설이오니 외부 출타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 충진이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77년 문상 또는 모임에 간다. 음식에 주의할 것. 89년 스스로 즐거움을 만들어가면 좋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42년 수입이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내부 갈등 조심. 54년 분실 또는 손재가 발생하니 문서나 지갑을 잘 관리하라. 66년 주변에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커졌다. 진땀을 지속하라. 78년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구두에 신경을. 90년 상대를 감사 안아주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43년 수산종사업 건어물류 회복이 보이니 가게를 청결하게 할 것. 55년 농수산업 종사업은 몹이 분주하다. 이익이 따르고 일손이 필요하다. 67년 집안어른께 우환이 올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를 드려라. 79년 육방이 꿈꿔가고 내일을 준비하면 결과가 크다. 91년 주변과 있다면 친구나 이웃에 요청하면 된다.

44년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 56년 출발이 지체되고 약속이 중도에 해지되니 일찍 출발하는 것이 좋다. 68년 묵묵히 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내일을 준비하라. 80년 대인관계를 폭 넓게 갖고 정보도 주변에서 창출하라. 92년 사소한 문제로 마음고생이 있는 날이다.

45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또는 김사가 있을 수 있다. 57년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다면 풀려나기 계획을 잘 세워라. 69년 갈등하면 똥사람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라. 81년 기도하는 마음과 양심이 필요하다. 93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지니 내색하면 풀린다.

46년 과음이나 늦은 귀가는 나에게 불리하니 삼가하는 게 좋다. 58년 유통업,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활동성이 강하거나 능력을 발휘한다. 70년 홍보 광고 마케팅 중개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수익이 창출된다. 82년 이성간에는 불화나 논쟁이 따르니 언행조심. 94년 분실 또는 건강증이 올 수 있으니 잘 챙길 것.

47년 이동 변화가 필요하며 가족에 안부전화, 근심수가 오기도. 59년 약속이 중첩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판단을 잘할 것. 71년 중매가 생기고 이혼자는 집안일에 분주, 자녀에게 신경을 많이 생긴다. 83년 자적이나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을 눈여겨볼 것. 95년 주변과 잘 융화되고 즐거움도 따른다.